

종교편향 언행은 언제까지?

8·27범불교도대회 이후...종교편향은 아직도 진행중

20만 불자가 서울시청 앞 광장에 모인 8·27범불교도대회 이후에도 공직자나 사회지도층의 종교편향 언행이 그치지 않고 있다. 삼보 스님의 위법방구와 전국 1만 사찰의 정부규탄 법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불교계 요구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가운데,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 종교편향 사례는 종교간의 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것이어서 우려된다.

◇서울시교육감, 근무시간 예배 참석 물의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 부부가 평일 근무시간인 8월 12일 오전 11시 서울 신일교회기도회에 참석한 것이 뒤늦게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만찬에 참석한 김진홍 목사(뉴라이프전국연합 회장)와 한기총 임신영 회장,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예장통합 부총회장) 등 목사 150여 명과 일선교장 5-6명 등 기독교인사 300여명이 참석한 기도회에 참석할 공 교육감은 분당 갈보리교회 집사이다. 특히 공정택 교육감이 참석한 기도회는 서울교육청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 홍보해 종교편향뿐 아니라 위법여부 시비까지 일으키고 있다. 현행법상 전자문서 시스템은 국가와 교육기관 간 공적 용도로만 사용가능하기 때문.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린다"고 시작한 공문은 "서울교육발전위원회가 주최하는 서울시 교육을 위한 기도회가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 당선자를 모시고 개최되었으니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안내했다.



9월 1일 여수 흥국사를 방문해 흥국사 주지 명선 스님(가운데) 등 여수지역 스님들에게 사과한 오현섭 여수시장.

이에 대해 조계종 종교편향위원회는 "이것은 성시화 작업중 일부"라며, "수많은 항의에도 각 기관 수장들이 종교 코드로 움직이는 것은 모종의 연관이 있다"고 비판했다. 조계종 정책연구원은 9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근무시간에 특정종교 기도회에 참석해 물의를 일으킨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음엑스포' 여수시장, 흥국사 사과방문

기독교계 신문에 '2012 여수세계 박람회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기고 물의를 빚은 오현섭 여수시장이 9월 1일 여수 흥국사를 방문해 사과했다. 오 시장은 "스님들과 불자들에게 죄송하며, 앞으로 불교계와 적극 협력하겠다. 여수 기독교직장선교회의

회 회장직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현섭 시장은 "시장으로서 어떠한 종교적 편향도 하지 않았다"며 문제의 핵심인 여수·순천·광양 등 전남 동부 3개시로 구성된 복음엑스포 물의를 빚은 이후, 3일에는 "불교계 집단시위 배후는 김정일"이라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김 명예교수는 "단 한 번도 이명박 정권이 불교를 탄압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며, "불교 승려들의 집단 시위에 배후세력이 있는지 없는지, 정보·수사 당국은 만전을 기해 사실을 사실대로 밝히는 것이 긴박하다"고 주장했다.

김동길 명예교수는 "대한민국이 혼란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집단은 적화통일을 시종일관 노리고 있는 북의 김정일 집단"이라며, 불교계 시위의 배후로 지목했다.

◇종교활동 위해 '일요일 시험 금지' 입법 물의

민주당 우제창 의원이 지난 8월 24일 밝힌, 공무원의 채용·승진시험을 일요일에는 실시하지 못하도록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기독교 편향적 입법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개정안은 주로 일요일에 진행되는 종교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청와대, 정부 부처 등 중앙행정기관과 시, 도, 군, 구 등 지방행정기관에서 공무원의 채용시험과 승진시험을 일요일 이외의 다른 요일에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국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국회의원이 관행적으로 진행된 시험날짜를 변경해 특정종교를 위한 법안을 발의한다면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길, "불교계 시위 배후 김정일" 운운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연세대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9월 2일 "승려 집단시위 배후를 밝혀라"는 내용의 글로 물의를 빚은 이후, 3일에는 "불교계 집단시위 배후는 김정일"이라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김 명예교수는 "단 한 번도 이명박 정권이 불교를 탄압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며, "불교 승려들의 집단 시위에 배후세력이 있는지 없는지, 정보·수사 당국은 만전을 기해 사실을 사실대로 밝히는 것이 긴박하다"고 주장했다.

김동길 명예교수는 "대한민국이 혼란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집단은 적화통일을 시종일관 노리고 있는 북의 김정일 집단"이라며, 불교계 시위의 배후로 지목했다.

기독교 지도자들, 종교간 화해와 상생 다짐

기독교교회협·기독교자교수협 종교편향 반대 한목소리

기독교교회협의회, 기독교자교수협의회 등 진보성향의 기독교 단체들이 나란히 종교편향을 반대하고 종교평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권오성 목사와 종교간대화위원장 김광준 신부는 9월 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하고 종교화합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권오성 목사는 "정부가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 막으려 한다. 종교차별 문제가 불교만의 일이 아닌 만큼 기독교계도 정부가 정교분리의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광준 신부는 "지금 문제는 종교간 갈등문제가 아닌데, (국민들이) 마치 기독교와 불교의 갈등 문제로 오해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기독교자교수협의회 회장 김성은, 이하 기독교자교수협은 9월 2



9월 3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을 예방한 권오성 목사(오른쪽)와 김광준 신부.

일 '이명박 정부의 종교편향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기독교자교수협은 "이명박 대통령은 교회권력의 정치세력화를 현실화시킨 장본인으로, 불교계의 저항과 반발은 당연하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기독교 편중적 사고를 갖고 정치와 국정을 수행하는 것은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닌 소위 보수적 복음주의를 표방하는 배타적 기독교 교회 때문"이라 지적했다.

기독교자교수협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어청수 경찰청장 사퇴 ▲개신교의 정치세력화 및 이웃종교에 대한 배타적 자제 중단을 촉구했다. 김성은·조동섭 기자

4대종교 연합기도회 9월 4일 국회서 열려

여야 대립의 장으로 인식되던 국회에서 불교·개신교·천주교·원불교 연합기도회가 열려 각 종교인들과 정치인들이 상생과 화합을 다짐했다. 국회정착회 등 국회의원 및 직원인 행 모임을 위한 연구모임인 '일치를 위한 정치포럼(공동대표 박상돈 의원)'은 9월 4일 오전 8시 30분 2008년 정기국회 개원기념 국회연합기도회를 개최했다.

연합기도회에는 세민 스님(조계사 주지), 권오성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조규만 주교(천주교 서울대교구), 김대선 사회부장(원불교) 등 4대종교 지도자들과 김형오 국회의장, 정몽준 최고의원(한나라당), 정세균 대표(민주당), 심대평 대표(자신당), 강기갑 대표(민노당) 등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들 200여명이 참석했다.

세민 스님이 원호 스님의 '일심(一心)' 사상을 예로 들고, 권오성 목사가 섬김의 정치를 강조하는 등, 참가자들은 모두 상생과 화합을 강조했다. 조동섭 기자

"교회 투표소 많아도 너무 많다"

최문순 의원, "공직선거법 등 개정 검토해야"

정부의 종교편향 논란 속에 최근 주요 선거의 투표소로 활용된 개신교 교회시설이 불교, 천주교 등 기타 종교시설을 모두 합친 것보다 월등히 많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문순 의원(민주당)은 9월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 분석결과,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 투표구 1만3178개 중 교회시설이 1050개소(8.0%)로 상당 105개소, 사찰 14개소, 기타 종교시설 25개소를 모두 합친 144개소(1.1%)보다 많았다"고 발표했다.

최 의원은 "이 같은 현상은 18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도 같았다"며 "서울시교육감 선거에도 364곳(16.6%)의 개신교 교회시설이 활용됐다. 상당 26개소, 사찰 2개소, 기타 종교시설 6개소 등이 34개소(1.6%)였다"고 말했다.

최문순 의원은 "주요 선거 때 특정종교 시설을 투표소로 활용하는 것은 유권자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종교편향 시비를 없애기 위해 현행 공직선거법 제147조(투표소의 설치)에 특정종교시설 이용 금지를 명문화하는 것도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 같은 현상은 18대

한가위 행사 부처님 자비로 풍성하게

사찰·단체, 차례·이웃돕기·세시풍속 행사 등 개최

민족 최대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각 사찰, 단체에서는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 먼저 전국 주요사찰은 9월 14일 추석 당일 불자들을 위해 합동차례를 봉행한다.

조계사, 화계사, 도선사와 봉은사, 능인선원, 전등사 등 전국 대부분의 사찰에서 사시법회 직후인 10시~11

시를 기해 합동차례가 진행된다. 불교계가 수탁 운영하는 지역복지관에서도 합동차례를 진행한다. 서울노인복지센터(02-6911-9552)는 9월 11일 오전 10시 서울노인복지센터 1층에서 합동차례를 개최한다. (사)인덕원(02-385-1351)이 수탁 운영하는 은평노인종합복지관은 9

월 11일 10시 30분부터 독거, 실형민 어르신을 대상으로 '흙놀이 합동차례'를 개최한다. 노숙자 복지시설인 보현의집(02-2069-1600)은 9월 14일 6시 영등포보현의 집 강당에서 노숙자를 위한 합동차례를 개최한다. 추석을 맞아 불우이웃돕기와 다양

한 세시풍속 행사도 열린다. 서울 능인정사(02-455-1080)와 건국대병원불교법당은 9월 9일 오전 11시 능인정사에서 광진구 및 성동구 주민 200세대에 1600만원 상당의 쌀과 선물을 전달한다.

열린선원(02-386-4755), 단양노인장애복지관(043-421-2828), 승가원장애아동시설(02-921-6410), 종로노인종합복지관(02-742-9500), 일산노인종합복지관(031-919-8677), 광진노인종합복지관(02-466-6242)등은 다양한 명절맞이 행사를 펼친다. 노덕현 기자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대구 정성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찬덕연등이 개발한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영가등 주름등 팔각봉축집등 청사초롱

육각조립등 공단등 오색등 칼라(보카시)연등

아름다운 등

‘동해 독도는 한국 땅’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리 261-6 / 전화: 031) 792-6288, 794-4055 / 팩스: 031) 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공고: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경고 합니다.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